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 3. 1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英, 런던 브릿지 테러 이후 테러범죄 급증

- 3.5 英 경찰은 지난해 런던 브릿지 테러범 체포를 기점으로 '19년 4분기 테러범 검거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*하였으며, 이는 최근 자국내 극우테러 증가**와 관련이 있다고 테러범죄 통계를 발표
 - * '19년 4분기 검거 건수는 80건 / 전 분기 대비 33% 증가, '17년 이후 최고치
 - ** '19년 테러용의자 280명 중 백인 42%, 아시아인 40% 등 차지

○ 英, 우익 테러단체 가담 경찰관 체포

- 3.5 英 현지언론은 대테러경찰이 메트로폴리스 소속의 현직 경찰관 (21세)을 우익테러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런던에서 체포하였으며, 이 남성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

미주

○ 美, 무차별 살해 모의한 남성 체포

- 3.6 美 현지언론은 경찰이 미주리주에서 영화 '조커'의 주인공 코스프레를 한 후,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'무차별 살해를 계획 중'이라는 언급을 한 「제레미 가니어(51, 男)」를 1급 테러위협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보도
 - * '12년 '다크 나이트 라이즈' 개봉 후, 콜로라도에서 모방 총기테러 발생(사망 12)

○ 美,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'외국테러조직'으로 지정 추진

- 3.9 美 현지언론은 국무부가 폭력적인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외국 테러조직(FTO,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)으로 지정하는 방안을

최초로 추진 중이며,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테러법이 없는 미국에서 극단주의 집단의 추적과 기소를 쉽게 할 것이라고 보도

아 · 태평양

○ 인도, 잠무카슈미르 테러 분석 보고서 발표

- 3.3 인도 정부는 지난 3년('17-'19년)간 잠무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분석, 총 1,550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996명(보안요원 251·시민 118·테러범 627)이 사망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총 4,300만 루피(약 7억원)를 지원했다고 발표

* '18.11 암리차르市에서 발생한 테러사건(3명 사망)이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

○ 인도, 아마존에서 폭발물질 구입하여 테러단체에 전달한 2명 검거

- 3.7 인도 정부는 아마존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'폴와마 테러*'에 사용된 급조폭발물 재료(질산암모늄·배터리 등)를 온라인상에서 구입해 '자이쉬 에 모하메드'(JeM)에 전달한 용의자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

* '19.2 잠무카슈미르州 폴와마에서 JeM의 차량폭탄테러로 경찰 40명 사망

중동 · 아프리카

○ 팔레스타인, 새로운 '폭발물 풍선'으로 이스라엘 위협

- 3.9 WP紙는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풍선에 폭발물을 매달아 이스라엘로 보내는 공격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, 직접적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매우 위협적인 테러수단이라고 분석

* 풍선은 약 80km까지 날아가 아이들을 유인·공격,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

○ 소말리아, 테러조직 '알샤바브' 고위 지휘관 사망

-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조직 '알샤바브(AS)*'의 해외 테러담당 고위 지휘관으로 미국이 '08년 약 60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던 「바시르 모하메드 마하무드」가 지난 2.22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

* 'Al Shabaab'(Shabaab=청년) : 소말리아내 외세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 목표로 '06년 결성된 조직원 7천~9천명 규모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/ 美('08.3월) 및 英·加('10.3월)에서 테러단체 지정

아프간 카불市 軍병원 자살테러

- '17.3.8 아프간 수도 카불市 '사르다르 모함마드 다우드 칸' 軍병원에서 괴한들이 자폭 및 총기 난사, 49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
 - 테러범들은 의사로 위장하여 병원에 잠입한 후, 1명이 입구에서 폭탄조끼를 터뜨리고 나머지 3명이 병실을 돌아다니며 소총을 난사
 - 軍은 헬기를 통해 특공대를 긴급 투입하여 6시간 이상의 총격전 끝에 테러범 전원 사살
- ISIS가 배후를 자처하며 아마크통신*·텔레그램을 통해 폭탄조끼와 소총을 든 채 ISIS의 깃발 앞에 서 있는 테러범들의 사진을 공개
 - * 아마크통신 : ISIS의 온라인 선전 매체
 - UN 안보리는 “테러를 실행·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한 이들은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할 것”이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
 - 전문가들은 ISIS가 시리아·이라크 격퇴전으로 거점지역인 모술·락카 등을 잃자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자행한 것으로 분석

< 마시나 해방전선(MLF) >

- (개 요) '카티바 마시나' 라고도 불리며, '카티바'는 무장단체, '마시나'는 서말리의 지역 명칭을 의미
- (목 표) 19세기 말리의 이슬람 국가인 '마시나 제국'의 재건
- (설립배경) '15.1 「아마두 투레」 말리 대통령이 쿠데타로 축출된 이후, 내전 등 정정불안을 틈타 「아마두 쿠파」가 결성
- (연계세력) 안사르 알 딘, 알카에다 마그렙지부(AQIM), 알 무라비툰
- (주요활동) ① '17.3 말리 수도 바마코 소재 래디슨블루 호텔 테러(20명 사망)
 ② '18.3 부르키나파소 주재 佛 대사관 겨냥 폭탄테러(30명 사망)
 ③ '19.4 부르키나파소-베냉 접경 지역에서 아국인 장OO 및 美·佛 여행객 4명 납치 (프랑스軍 구출작전으로 석방, 軍 2명 사망)
- * '20.2.4 UN 안보리는 수장 「아마두 쿠파」를 테러분자로 지정

